

regime의 형태	사회경제 발전수준			
	1	2	3	4
합의형 (G)	시민공동체	(대의 합의체)		(유도피상형)
주축형 (L)	전통왕조	2분체제	무핵 3분체제	
			유핵 3분체제	
이념형 (획일형) (S)	급진적 평등주의	(전체주의 체제)		

Lowell Field의 regime typology

드의 비교정치학에 관한 논저의 도식과 매우 흡사하다.

그는 집단의 성격을 합의형, 주축형, 획일형으로 나누고 각 형마다 경제사회발전의 정도를 DA값(결정판여치라 부르는 임의의 파라메트로 각국의 연대에 따른 계산치와 계산 방법이 소개될 것임)에 따라 4단계로 나눈다. 이 이론의 도식이 어느정도 옳고 어떤 점을 고쳐야 할 지 사회역학적 논의의 틀을 통해 평가, 수정한다.

시간이 허용되면 요동에 대한 언급, 에너지에 목을 매다 시피한 인류 장래문제가 왜 그다지 심각하며, 앞으로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옳은 대처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사회과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여야 할 것인가 이야기하고자 한다.

특히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어 미래사회가 펼쳐질 때 어떤 점에 유의하여야 할 지가 논의될 것이다.

끝으로, 몇가지 역사상 두드러졌던 사상들 즉 "ISMS"에 대한 사회역학적 해설을 엔트로피 개념과 소득분배그림의 모양, 그리고 응집력등으로 진행시킨다. 구체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족주의에 대한 간결한 평가가 내려질 것이다.

吐含山 石窟의 名称問題

서울大 物理學科 南 天 祐

I

石窟庵이라는 名稱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名稱이다. 즉 그것은 吐含山에 있는 것이며, 新羅時代에 建造된 石窟形 石造建築物이고, 그 곳에 彫刻되어 있는 佛像들은 東洋屈指의 예술품들임을 指摘하는 것이다.

그러나 짐짓 庵子를 聯想케 하는 石窟庵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사실은 올바른 名稱이 아닌 것이며 그것은 다만 日人들이 그렇게 잘못 呼稱하기 시작한 데에 그 起源이 있을 뿐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祖上들은 石窟의 名稱과 石窟庵의 名稱을 明確히 區別하여 使用했으며, 石窟庵이란 그 곳의 僧房만을 뜻하는 것이었으나 今世紀에 이르러 그것이 日人들에 의해서 混同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물론, 異邦人들이 石窟의 名稱을 混同하였다 하여 그것이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니며 또 그로 인하여 그들이 石窟에 대하여 어떠한 損傷을 加하였다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解放後 우리의 學界에서는 이러한 日人들의 잘못된 呼稱法을 그대로 無批判하게 踏襲하여 石窟을 庵子の 構造로 改造하기까지 이르렀으며, 그로 인하여 石窟에 대하여서는 돌이킬 수 없는 甚大한 人爲의 損傷을 結果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石窟은 保存上의 一大危機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니 이는 유감된 일이며, 이러한 점에서도 石窟의 名稱의 문제는 正確히 究明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면 石窟의 呼稱의 문제가 왜 保存의 문제와도 그렇게 直結되는 것일까를 알아 보기 위하여 今世紀의 補修工事に 대하여 먼저 살펴 보기로 하자.

II

日人들은 韓半島를 合併한 直後부터 石窟修理에 着手하였으며 1913년 完全解体復元工事を 하기에 이르렀으니 그것은 그들이 功을 내세우기 위하여 行한 것이라고도 생각될 수 있다.

動機가 鮮明치 않았던 관계였는지 日人들의 修理工事は 오히려 石窟에 대하여 새로운 문제를 發生케 하였으니 그것은 濕氣문제였으며 이것은 解放時에도 解決되지 못한 그대로였다. 그 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손에 의한 本格的의 工事が 시작된 것은 1961년 9월의 일이었으니 그것은 第三共和國의 出帆과도 때를 같이 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때의 工事は 石窟에 대하여서는 一大損傷을 加한 工事였으며 人爲의 破壞 바로 그것이였다. 다시 말하면, 雨靴 없이는 들어가기도 어려운 정도로 습기문제는 더욱 惡化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그 후 17년 동안에 石窟이 입은 風化와 損傷의 정도는 그 때까지 石窟이 입어 온 모든 損傷보다도 훨씬 더한 것이다.

이것은 石窟을 庵子構造로 改造한 데에 그 全

의인 原因이 있는 것이다. 즉 지난 工事에서는 元來 開放되어 있던 石窟의 前面部를 木造建物の 新築으로 차폐하여 놓았으며, 上部와 側面部에는 2층들을 만들고 그 위를 또다시 두꺼운 封土層으로 덮어 놓은 것이다. 말하자면, 이것은 14m 깊이에 있는 密閉된 地下室의 構造로 石窟을 改造한 것이니 이러한 構造 下에서는 石壁에서의 結露現象은 上記와 같이 극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石窟의 올바른 名稱은 무엇이며 또 그렇게 불리울 수밖에 없었던 現由은 무엇이었을 까 등에 대하여 옛 記錄들을 살펴 보기로 하자.

III

751년에 創建된 石佛寺는 17世紀 後半頃에 이르러 佛國寺의 庵子가 되었으며 그 이름도 바뀌게 되었다. 그러나 僧房만으로 構成되어 있는 通常の 寺刹 庵子와는 달리 石佛寺에는 僧房 뿐 아니라 大雄殿에 該當하는 石佛殿이 그대로 있었던 것이므로 그 兩者를 모두 區別呼稱할 필요가 생겼으며 따라서 上記와 같이 石佛殿은 石窟이라 呼稱하고 그 곳의 壽光殿은 石窟庵이라 呼稱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여 주는 자료로서는

i. 縣板題名인 「吐含山石窟重修上棟文」

ii. 山中日記 1688년 5월條의 『15日至石窟庵 庵僧明海迎入 座小時 上石窟…… 下宿庵 16日又上石窟 更見…』

iii. 佛國寺事蹟 中の 『1703年 從悅重觀石窟庵又築窟前石階』

등을 例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石窟과 石窟庵과의 區別은 分明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石佛寺 또는 石佛이라고 하는 元來의 名稱이 왜 保存되지 아니하고 石窟이라고 하는 색다른 名稱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에 대하여 우리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石佛殿의 名稱이 石窟이라고 바뀌게 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의 前面이 開放된 構造였기 때문인 것이다. 만약에 그의 元來의 前面이 오늘날과 같은 庵子形의 構造였다면 그것을 다만 石窟이라고 부를 수는 없었을 것이며 石佛殿이라는 元來의 이름을 그대로 固守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禮記 月令篇의 昏旦中星記事 研究

外國語大 金 基 協

二十八宿는 上古에서 近世에 이르기까지 中國 文化圈에서 天文學의 座標系로 使用되어 온 制度이다. 二十八宿(或은 그 前身이) 中國文獻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書經堯典의 四中星記事로 알려져 있지만, 體系的인 形態를 갖추고 本格的으로 使用된 例는 禮記의 月令篇과 呂氏春秋에 비로소 보인다.

孟春之月	日在營室	昏參中	旦尾中
仲春之月	日在奎	昏弧中	旦建星中
季春之月	日在胃	昏七星中	旦牽牛中
孟夏之月	日在畢	昏翼中	旦婺女中
仲夏之月	日在東井	昏亢中	旦危中
季夏之月	日在柳	昏火中*	旦奎中
孟秋之月	日在翼	昏建星中*	旦畢中
仲秋之月	日在角	昏牽牛中	旦觜觿中
季秋之月	日在房	昏虛中	旦柳中
孟冬之月	日在尾	昏危中	旦七星中
仲冬之月	日在斗	昏東壁中	旦軫中
季冬之月	日在婺女	昏婁中	旦氐中

* 呂氏春秋에는 「昏心中」「昏斗中」으로 되어 있음.

明代 以前の 月令天文記事 研究는 述語의 考證에 局限되었으나 清代에 西洋에서 近代天文學의 知識이 전해짐에 따라 歲差運動(precession)의 逆算을 통해 觀測年代를 推定하는 作業이 시작되어 今世紀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다.

이 作業을 包括적으로 整理한 것이 能田忠亮의 「禮記月令天文考」(1938, 「東洋天文學史論叢」 所収)이다. 이에 대해 橋本增吉는 「禮記月令의 曆法思想」(1944, 「東洋學報」 29)의 많은 部分에서 能田의 研究를 言及하고 몇가지 技術的인 問題(二十八宿 距星의 同定 및 觀測技術의 水準)를 指摘하였으며 飯島忠夫는 「禮記月令天文考を讀む」(1941, 「東洋學報」 27-1)에서 中國曆法の 起源을 包含하는 根本的인 問題에 대한 異見을 提示했다. 橋本와 飯島 兩人이 追求한 論旨는 서로 다른 方向이지만 그 過程에서 月令天文記事의 體系性(같은 時期에 一定한 方法에 의해 觀測되고 記錄된 資料의 集合이라는 命題)을 否認하는 立場을 같이 하였으며, 이 점이 能田(및 以前の 新城新藏,